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02 - 2015.8.0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명(물록개담음의노래)	해국스님	모과나무	6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정경각
2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7	감산자전	담산덕정	대성 탐구사
3	명추회요-종경록 활요본	희당실/원력	정경각	8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4	행복은덜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제출판사	9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 최인호	여백
5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경선/김관	효림	10	행복 뇌 접속	리현수/김미옥	담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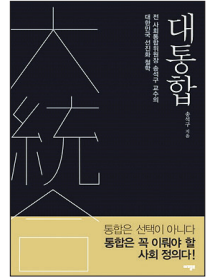
“소통과 통합은 우리 사회서 꼭 이뤄내야할 정의”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보다 인구당 무려 60배가 넘는다. 2000년 이후 최근 15년 사이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소송증가율이 5배를 넘는다.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회자될만큼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가?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을 지낸 ‘소통의 달인’ 송석구 현 삼성정책학재단 이사장(前 동국대 총장·사진)은 최근 펴낸 책 《대통합》에서 ‘소통과 사회통합’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한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평생을 학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통의 중요성을 깊게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다 사회통합위원장을 지내면서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며 “물론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고, 갈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다.

《대통합》은 2011년 지금은 ‘국민대통합위원회’로 변경된 ‘사회통합위원회’ 서 위원장을 역임한 송석구 교수가 사회통합위원장 시절 통렬히 깨달은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그 과제 그리고 대안 등에 대해 정리했다. 이 책은 저자가 위원장 시절 경험하고 그간 소통과 통합에 관해 사색한 생각의 결과를 엮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격조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했다. 학자(철학 교수)로, 교육자(동국대·동덕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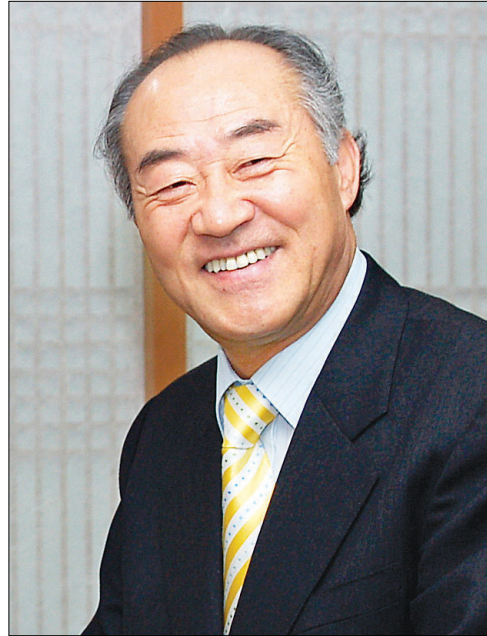


대통합 송석구 지음 이템포 펴냄 1만 5천원

가천의과대학 총장 역임)로 칠십 평생을 살아온 노학자가 우리 사회에 ‘소통과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통합”은 정치, 사회, 과학,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폭발할 듯 갈려져 있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숙제 중 하나다. 송석구 교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 사회통합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책은 우리 사회에 사회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사회통합으로 다가가기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그는 세대 간의 갈등, 계층갈등, 이념 갈등,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품어 다양성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데올로기 사회를 탈피해 한국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통합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제 1장 ‘왜 사회통합인가’에서 저자는 우리가 왜 사회통합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 보자.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에서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



사회통합을 위해 넘어야할 7가지 과제 제시
세대, 계층, 이념, 지역, 남북, 다문화 등
소통의 근본 해결책은 상대방 인정 하는 것
다양한 분야 ‘통합 명사’ 대담도 함께 수록

당 국내총생산(GDP)은 7%에서 21%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은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 문제처럼 국민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렇기에 사회통합은 국가가 적극 개입 할 문제로서 바라봐야 한

다. 또한 한국 사회에 횡행하는 ‘갑질’ 문제, 세계화의 패배,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남북 갈등 등 수많은 불통과 갈등의 문제가 한국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장 ‘사회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7가지 과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넘어야 할 7가지의 과제를 하나씩 다루고 있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북 갈등 △다문화 가정 문제 △한국적 사회통합 패러다임의 설정 등이 그 과제들이다. 세대 갈등 관련 일자리 부분에 대해 저자는 “노년층에게 정년은 연장하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보수를 줄여서 젊은 층에 나눠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과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야말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3장 ‘소통, 통합의 문화를 창조하는 힘’은 그간 사회통합위원회서 진행한 사회통합 활동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성격을 띤다. 노년과 청년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운영한 콘서트 카페 ‘청춘다방’ 프로젝트, 젊은 세대에게서 소통과 통합의 해법을 들어본 ‘사회통합 UCC 공모전’, 종교계의 화합을 꾀한 ‘종교토론회’와 ‘종교평화선언’ 등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4장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의 핵심 비결’에서는 저자가 그간 생각한 소통 철학을 다룬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불안정성에서 찾는다. 우리는 너나 나나 다 틀릴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이를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

서 ‘천부인권’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가진,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갈등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사람 사는 세상도 갈등이 있어야 발전 하지만 과잉불균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되, 적절한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낼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된다. 소통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하루 이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가 현재 놓치는 ‘교육’서 통합의 지름길을 찾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언이취 개불허, 득의이언 무불허(如言而取 皆不許, 得意而言 無不許).” 이 의미를 해석하면, “말 그대로 들으면 그 무엇이든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뜻을 얻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바가 없다”란 뜻이다. 이 말은 화재론(和諍論)을 사회통합 키워드로 삼은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가 《금강삼매경론》서 한 말로 화쟁론의 정수를 담고 있다. 들리는 대로만 들으려 말고 속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이해 없이 말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용서할 서(愆)’를 같은(如) 마음(心)’이라 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게 하면, 즉 상대방의 처지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법이다. 이런 휴머니즘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소통의 기본이고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편 책 말미에 저자는 자신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화재론 석좌교수와 김용택 시인, 엄청길 교수 등 다양한 통합의 명사들과 나눈 글을 실어 독자들이 대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돕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책속의 밑줄 긋기

“소통이 단절된 사회에는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높아지기 마련이고,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질 뿐이다. 물론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고, 갈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소통의 문화가 바로 서야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지면서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고민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록 특정

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사회통합은 왜 필요한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이뤄졌던 각종 개혁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사회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마저 발생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회통합이라는 화두가 대두된 것이다.”

“소통은 물론 상호 간에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상대방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접점을 찾고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통을 잘하는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나를 누구냐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으로, 누구냐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갖고있는 것이다. (...) 또한 한편으로 소통에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지혜를 흐리고, 상황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소통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력과 재치를 발휘하면 힘든 소통도 부드럽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소통에도 윤택유가 필요한 것이다. 갈등이 있는 한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방의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바가 없다. 인간의 본바탕에서 너

와 나는 같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공부를 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 본질은 상대방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원하고 참되고 순수하다는 인식이다. 그렇게 상대방을 긍정할 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 이뤄진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국가교육 등 인간은 평생교육을 해야 하는 존재다. 이런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결국 사회통합의 핵심 열쇠는 교육이 쥐고 있는 것이다.”

300질 한정판 예약

《벽암록》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안집

《종용록(從容錄)》역주·해설판(전 5권)

천동정각(天童正覺) 송고(頌古) / 만송행수(萬松行秀) 평창(評唱)
석지현 역주·해설(벽암록 역주·해설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과 더불어 선가(禪家)의 필독서!
선종의 공안 송고 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

이 종용록은 원문을 수록하고 현도·완역했으며, 또한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았고, 《종용록 어휘사전》까지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용록 어휘사전》은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해설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 한 권만 있어도 선어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주·해설자는 《벽암록》전 5권 값 145,000원)을 역주·해설한 석지현 스님으로 번역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 ▶ 출간일 9월 30일 / 배본일 10월 5일부터 배본
- ▶ 예약 : 민족사 02-732-2403~4
- ▶ 하드카바 / 각권 400~450쪽 어휘사전 198쪽
- ▶ 예약금 : 65,000원
- ▶ 정가 : 전 5권 값 165,000원
- ▶ 송금은행 :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일감 스님의 금강경 내비튀 북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특별 출연 이창선과 친구들(퓨전국악팀)

‘내비튀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일감 지음 115,000원

●●●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망 조상님과 용맹 정진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백중날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법보시 하시면 크나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